

생활정보

전기·수도 등 통합고지서

생활 올 하반기부터 전기, 가스, 수도, 전화료 등 요금 고지를 일원화한 통합고지서가 발부된다. 또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한 서류가 대폭 줄어들고 회사원들이 퇴근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이용시간이 연장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개혁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폰 114요금 58% 인상

통신 휴대폰으로 '114'를 이용하는 요금은 80원에서 1백 27원으로 평균 58% 인상됐다. 종전에는 건당 80원의 서비스 이용료만 내면 됐으나 지난 1일부터 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요금을 따로 받기로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연대보증 가족으로 한정

금융 앞으로 개인별로는 은행권 전체의 연대보증금액 한도가 정해져 한도금액 내에서만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대보증인 자격도 채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한정된다. 은행연합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매주 일요일 '신록순환열차'

여행 철도청은 경부선~충북선~중앙선을 돌아오는 '신록순환열차'를 당일관광코스도 운행한다. 서울역에서 오전 8시55분 출발해 오후 8시17분 청량리역으로 돌아온다. 6월에는 매주 일요일, 7월 1~15일까지는 매주 월·수·금요일 운행된다. 1만7천5백원. (02)392-7788

구청마다 아르바이트 모집

모집 서울 각 구청이 여름방학 기간동안 일할 아르바이트 대학생생을 모집한다. 인원은 9개 구청에서 모두 455명으로 추정을 통해 선발되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행정보조 일을 맡게 된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구청은 종로, 성동, 동대문, 노원, 은평, 양천, 동작, 관악, 강남구청 등이다. 보수는 일당 1만6천원(식비 3천원 포함)

장기보존 '요구르트 김치'

새상품 인하대 미생물생태연구소는 한울의 교수팀을 남새가 거의 나지 않고 장기보존이 가능하며 유산균이 대량 함유된 '요구르트 김치'를 개발했다. 이 김치는 상온에서 한달 이상, 10도 이하에서는 6개월 정도 보존할 수 있다. 기존 유제품보다 100배 가량 많은 유산균을 보유하고 있다. (032)860-7694

부업알선 미끼 교재 강매

호도관광 영터리약 판매

텔레마케팅 사생활 침해



서민층 울리는 악덕상훈

악덕상훈이 판치고 있다. 주로 서민층을 울리는 악덕상훈은 경제적인 손실을 안길 뿐만 아니라 생활영역까지 침해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보호법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악덕상훈의 유형중 피해가 가장 큰 유형은 방문판매와 노인대상판매, 텔레마케팅 등이다. 우선 방문판매의 경우 한국소비자연맹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방문판매관련 상담만해도 1천3백여건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가 크다. 방문판매관련 피해사례로는 부업이나 직장 알선을 미끼로 한 자격증교재 강매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요구해도 상품대금의 20~50%등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약점을 노리는 악덕상훈도 최근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사례로는 경로잔치나 호도관광을 빙자해 영터리만병통치약을 팔거나 물품을 떠먹이고는 화유와 협박을 동원한다. 심지어는 종교행사를 빙자한 금융사기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가정이나 직장에 전화를 걸어 각종 물품 또는 부동산 구매를 권유하는 이른바 텔레마케팅은 밤 12시에도 전화를 거는 등 야에 사생활 침해에 가깝다.

이밖에도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재나 회화테이프 등을 강매하거나 PC통신을 통해 물건판매광고를 낸 뒤 대금을 선반납하는 출행라치는 경우도 많다. 또 최근의 취업난 및 고용불안 틈새를 이용해 구인광고를 낸 후 상품을 갈취하고 갈아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들은 관련법규가 미비한만큼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계약서는 반드시 챙기며 판매원이 말하는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등의 부대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한다. ▲해약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하며 해지사를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작성해 해당업체에 보낸다. ▲서면통보 후에도 계속 대금이 청구되면 시·군·구청의

소비자보호과와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한다.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나 계약서를 받지 않은 사람을 계약에 철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구입시 가격 및 판매처와 상호를 분명히 확인한다. ▲상식을 벗어난 사은품이나 추첨을 통한 무료상품제공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방문판매를 하지 않는다.

현행 소비자보호원은 악덕상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상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핫라인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전화, 팩스, PC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화인 080-220-2222에서 안내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불교의 눈

(우바세계경)에 "장사를 하고 재물을 모으되 계량기를 속여서 팔거나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다면 죄가 된다"는 말씀이 있다. 또 <백유경>에는 "장사하면서 온갖 법답지 않은 일을 하니 일은 비록 성취하지만 그 이익은 손해를 보충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상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마치 두 눈알이 빠지는

탐심이 악덕상훈 키운다

것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다. 악덕상훈은 지나친 탐심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이 틈새를 파고드는 악덕상인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그에 합당한 물품을 주고 받는 건전한 상도의가 자리잡아야만 악덕상훈을 뿌리뽑을 수 있다.

佛어린이 5만명 邪敎에 시달린다

佛 경찰청 보고서

최근 프랑스에서 사고(邪敎)에 시달리는 어린이 실태를 파헤친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산하 정보총국이 2년여 조사 끝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 또는 사고 속에 자라고 있는 어린이가 무려 5만명에 달한다는 것. 이중 5백여명은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어린이들이 교주의 노리개가 되고 있는 공동생활체에서 학대와 해괴한 교리를 주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루 한끼만을 허용하는 알프스 지방의 한 사고집단에서는 영양실조로 어린이 2명이 사망했으며, 남

자 어린이는 머리를 뺨박 밀게하고 여자 어린이는 '신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아픈 환자를 시키며, 또 다른 집단에는 특별히 기간에 수면과 음식을 완전히 금지했다. 심지어 '태양의 사원'의 경우는 어린이들을 '신의 제물'로 바치고 성적학대 등 끔찍한 신체적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또 집단생활이 어려운 도시 주변과 사고종파들의 경우 보충학습 각성교육 등의 명목으로 신도의 어린이 자녀에게 정규학교의 특정행사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거부하도록 세뇌 또는 강요하고 있기도 하다.

한명우 기자

생활속 다이옥신 줄이는 법

다이옥신은 대기오염, 흡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의식주 전반에 걸친 요령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한다.

▲육류·어패류 등에서 지방을 떼내고 먹고 가공된 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생선의 경우 지방이 많은 내장이나 아가미, 껍질 등은 먹지 않는다. 특히 비늘은 잘 제거하거나 씻어야 한다. ▲탄 고기는 먹지 않는다. ▲과일이 나야채는 물로 잘 씻어 먹는다.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소각장, 농약공장, 종이공장 주변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은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새로 구입한 흰색 내의나 흰색 침대시트는 반드시 한 번 삶은 뒤 쓴다. 표백과정에 다이옥신을 사용하는 1회용 기저귀나 현관색의 화장지, 흰색 내의나 침대시트 등 거의 모든 생활품이 다이옥신에 오염돼 있다는 보고도 있다.



공종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 서해 남북총돌 나라 뒤죽박죽 국민에게 믿음을 ”

열흘이상 이어지던 북한군 전투함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입이 마침내 남북한의 무력충돌로까지 번졌다. 북의 병력들은 우리 측의 수없는 경고를 무시하고 남쪽 수역을 멋대로 휘젓다가 결국 피아간의 포격전 끝에 한반도의 긴장을 몰고왔다. 국민들이 아연전쟁공포에 떠는가하면 심각한 정신적 혼란과 불안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국민의 불안과 혼란상이 이번 사태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놓은 복합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듯

모 지사집의 엄청난 외화 도난 구설에서 시작해 일부 장관부인들의 고급옷 뇌물의혹으로 이어진 현정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다. 대안 촉탄주 기운에 기고민정해진 한 검찰고위층이 파업유도를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장관의 목이 달아나고 노동계 전변교섭을 하겠다고 아우성인 난맥상이 모두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최고 권력자까지 한술 더 떠 국민이 여론재판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판이니 국민의 실망이 수밖에 없다. 거기에 바다에서 남북이 포격전까지 벌이니 국민의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냉정한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 불안은 더 깊은 곳에 있는지 모른다. 6.25전쟁을 통해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또 근 50년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의 군이 총부리를 마주한 상황에서 시시때때로 북이 무장간첩이며 대남공작조를 남파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기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고있다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일인데 정부가 그건 전혀 패념하지 않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정책을 펴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햇볕정책의 효험을 정당하고 있지만 그런 무한정의 관대한 정책이 북한을 감동시켜 현재적으론건정적으로 회심하리라 보장은 없다.

그 실례가 바로 서해의 남북총돌이다. 이는 종래 우리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에 심한 혼란과 불안과 당혹감을 제기한다. 우리 해군정병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동안 일각에서는 굶은 북한 주민을 살려야 한다고 비호적 식량을 모아 북으로 실어내려드라 정신이 없다. 그런가하면 또 한편에선 금강산 관광을 간다고 아우성이다.

사태의 위험성은 바로 이같이 온통 나라가 뒤죽박죽이란 점에 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있고 그에 호응하는 국민의 일사불란한 정신이 있다면 문제는 덜 심각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의 생명을 모두 받아들이고, 북한 주민이 가없다고 온통 국민의 동정무드만 조성하여 쌀과 비료만 가져다 준다고 우리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웬만큼 장난질을 해도 햇볕정책을 펴는 남한이 살아하니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것이냐고 으르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잘못된 온정주의가 국방의 와해를 불러온다는 뒤늦은 깨우침으로 종래와는 다른 과격한 대결정책으로 치달릴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점에서라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현실을 현시로 인정하고 북한에 대해 엄격하고 분명한 상호주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북한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우리 해군이 아무 일 없는양 보고도 않는가하면 북한 경비정의 침입을 '월선'이라고 하고 그것도 '꽃게잡이 보초차원'이라고 함법적 이유를 달아 설명까지 해주고 심지어 사회를 와해시키기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고있다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일인데 정부가 그건 전혀 패념하지 않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정책을 펴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햇볕정책의 효험을 정당하고 있지만 그런 무한정의 관대한 정책이 북한을 감동시켜 현재적으론건정적으로 회심하리라 보장은 없다.

불심과 불성은 절이나 경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있다

삶에는 지혜와 용기와 진실이 필요하다

화엄법계의
소울음 소리들 들었느냐

석만용 스님 지음 변형국판 / 320쪽 / 값 7,000원



이 명상록을 집하는 독자들은 금방 저자인 스님이 범상 안에서만 사시거나 경전의 글귀에만 매이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중생의 삶 가운데 절간을 짓고 중생의 애환과 눈시울에서 경전을 읽는 본심을 알게 될 것이다. 겪은 대로 말하는 글예술의 수필이 독자로 하여금 지은이의 삶을 머리속에 그려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이라 한다면 스님의 이 명상록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믿는다.

시인, 경성대학교 도서관장 - 김희근

명예, 혹은 명성의 고백, 체면과 윤리, 도덕의 굴레, 자존심의 송곳, 물질의 명예..... 나는 이 모든 굴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각자 판단의 잣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아는 만용스님은 누구보다도 많이 벗은, 그래서 담을 것이 넉넉해져가는 큰 스님이라는 사실이다.

소설가 - 김수용

삶이란 뭐꼬

석만용 스님 지음 변형국판 / 256쪽 / 값 7,000원



“누더기 같은 욕망을 버려라.”

“쓰레기같은 집착심도 버려라.”

“절레같은 망상, 통달은 오만과 권견도 버려라.”

나는 한동안 삶에 지친 군산들에게 버릴 것만을 강조했다.

그들이 뽕잎을 먹고 크는 누에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뱀뱀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삶에는 신선한 뽕잎이 고갈되지 않아야 한다는

삶의 법칙을 최근에는 깨달았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불제자인가.

삶이란 변화가 있고 희망이 존재하는 저마다의 오솔길이다.

나는 한 마리 파랑새가 되어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

중생들의 머리 위에서 노래공양이라도 하고 싶다.

그간 저질렀던 무심, 무능, 무학의 소치를 일부나마 털기 위하여.